

이 사회가 나를 버렸나?

(사회적 현상이 불러온 자살)

자살을 논할 때 프랑스의 사회학자 뒤르크하임(Dürkheim)의 견해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자살 행위를 개인의 이상심리에 별 상관없이 벌어지는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했다.

자살의 동기에 한 개인의 정신의학적인 측면을 배제한 듯한 그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겠으나, 최근 세계에서 벌어지는 술한 자살 테러나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우리 사회의 실직 가장의 자살을 보면 상당 부분은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에 의하면 자살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한 개인이 그가 속해 있는 사회와의 융화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이기적 자살(egoistic suicide)이 있다. 여기에는 정신분열병 환자의 병적인 자살이 그 예일 수 있겠고, 둘째는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와 지나치게 결속된 나머지 감행하는 이타적 자살(altruistic suicide)이다. ‘알 카에다’ 조직원의 세계무역센터 민항기 돌진 사건 또는 이라크 민병대의 자살 폭탄 테러와 같은 것이 그 예이다. 셋째는 사회에 대한 개인의 적응이 갑자기 와해되어 발생하는 무통제적 자살(anomic suicide)이다. 이것은 더 설명할 것도 없이 매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다시피 하는 “과산 가장(家長)의 자살”을 주목하면 이해할 수 있다. 그는 특별히 “무통제적 자살이야말로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자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였다.

필자도 진료실에서의 경험에 의하면 그의 주장이 확실히 맞는다고 느낀다. 최근 몇 년 간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면서 구조조정, 파산, 부도 등으로 유발된 개인의 적응력 상실과 그로 인한 무통제적 자살은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 과정을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 한 개인의 성격상의 특징, 직장 내의 적응도, 가족들의 지지 등이 지속적으로 관련되고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긴 하지만, 결국 현대 한국 사회에서 급증한 자살은 IMF 이후 심각하게 숨통을 죄는 경제 문제가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1997년 국제 통화기금 즉 IMF의 구제금융이 시작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체중감량에 나섰다. 40대 중반의 A씨가 일하던 공기업에서도 예외 없이 구조조정이 시행되었고 전체 기술직 요원 30 여 명 중 절반 정도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명예퇴직 하여 직장을 그만두었다. 기술직 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구조조정에서 가까스로 제외되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자신이 그 회사의 노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혜택을 입은 것이라고 했다. 기술직에 근무하던 그는 회사가 몸집 줄이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명예퇴직을 신청해야 할 처지였지만 노조의 후광을 입어 가까스로 “살아남았다”는 것이었다.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그에게 노조는 하늘과 같은 존재였음이 틀림없었다.

그 후 약 2년여의 시간이 흐른 후 어떤 이유 때문에 그는 노조와 갈등에 빠졌고 마침내 노조의 탄핵을 받아 비노조원의 신분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다. 이 때 불행하게도 그 회사의 2차 구조조정이 시작되었고 그는 어느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한 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었다. 명예퇴직을 차일피일 미루던 그는 자신이 익숙하던 기술직에서 밀려나 전혀 생소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그는 그것을 “사표를 쓰라”는 압력으로 받아들였다. 회사에서는 그를 내보내려하고 노조는 그것을 못 본 척 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아무도 없는 외로운 바다에 홀로 표류하는 쪽배 신세가 되어버렸다. 바로 그 시기에 그는 처음으로 병원을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속해있던 그 조직의 결속으로부터 심리적으로 이미 제거되었음을 통감했다. 남은 것은 물리적인 절차뿐이었다. 원래 다른 사람과 관계도 원만했고 싹싹했던 성품은 크게 위축되어서 남들과 대화하는 것도 기피하게 되었다. 이미 그는 아노미(anomie:사회적 규범과 가치의 붕괴)에 빠져 사회적, 심리적 고립현상을 겪으며 자살 충동에 빠져있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짧은 기간 동안 입원을 하였고 그 후로 항 우울제를 처방받으며 일 년 정도를 더 버텼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두통, 팔 저림, 불면증, 불안, 자존심의 상실 등을 겪었다. 일 차 구조조정 때 먼저 나간 동료들에 대해 심한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으며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 벗어난다면 행상을 하더라도 지금보다 마음이 편하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도 했다. 결국 그는 “명예로운 퇴직”을 하기로 결정했고 퇴직 후 단기간 해방감을 맛보았다.

다시 심각한 우울증이 그를 엄습한 것은 새로운 직장에 출근해서 이틀 동안 근무하며 느낀 좌절감 때문이었다. 자신이 늘 해왔던 일을 하기로 하고 어느 작은 공장에 취직한 그는 자신이 다룰 수 있는 기계가 하나도 없다는데 절망감을 느꼈다. “조금만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다”며 만류하는 사장에게 오히려 “생각을 잘 못 했다.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스스로

사표를 쓰고 나왔다. 자신감은 땅에 떨어졌고, 온몸은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진료실에 와서는 “옛날에 안 좋았던 일들이 자꾸 떠오른다”고 하고 “자신은 안 좋아질 것”이라며 지레 겁을 먹었다. “이대로 가면 몇 달 후면 가족이 굶는다”며 필요 이상의 걱정에 빠져들었다. “내 상황이 아주 안 좋다는 것은 알겠지만 입원실에 한가로이 누워 있을 수도 없다”고도 하고 “다시 직장을 찾아야 하지만 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도 했다.

긴 이야기를 나누고 기분이 다소 나아진 듯 그는 “우선 매일 조깅이라도 해서 몸을 튼튼히 만들고 자신감을 얻도록 해 보겠다”고 말하고 진료실을 나갔다.

그러나 그 날 오후 그는 조깅을 하겠다고 밖에 나간 후 아무 예고도 없이 어느 고층 아파트에 올라가 투신자살하고 말았다.